



가

2005. 3. 31



I.

1.1

1.2

II.

2.1

2.2

III. BRICs

3.1

3.2

3.3

3.4

IV.



1.

향후 20년간 세계경제는 5~7%의 성장세를 기록할 전망

- 중국 등 BRICs 경제가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
- 미국경제도 선진국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

()

(단위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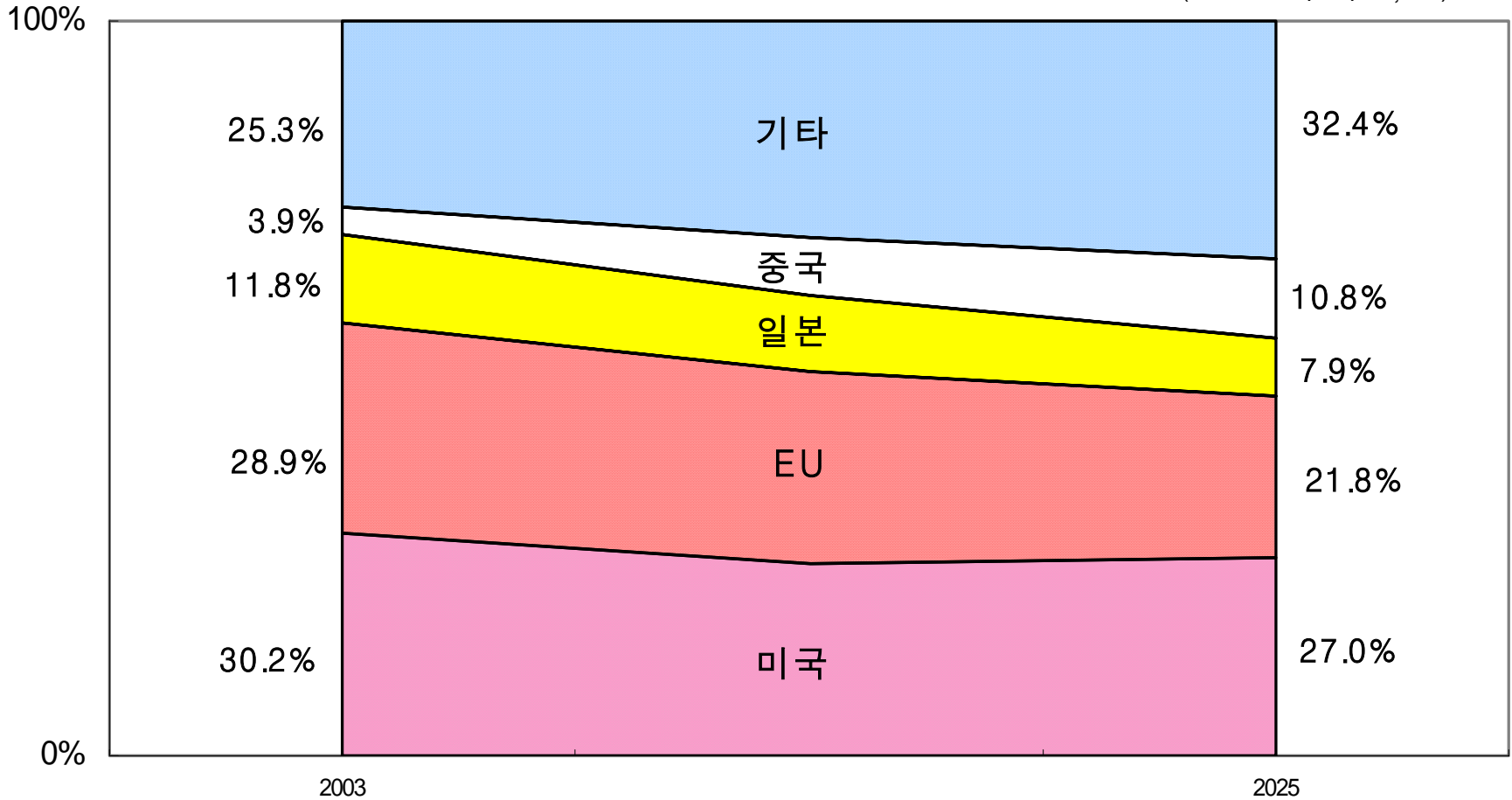
	세계	미국	EU	일본	중국	인도	러시아	한국
2001~2010	7.0	5.1	8.5	3.8	13.5	9.7	17.3	8.3
2011~2020	5.6	5.8	3.6	3.7	10.0	9.2	9.8	5.5
2021~2025	5.3	5.7	3.5	2.1	8.6	9.0	5.1	5.0

자료: Global Insight, 『World Economic Outlook』, 2005.1

1.2

GDP

(전체대비 비중, %)



자료 : Global Insight

중국의 부상과 EU 및 일본의 위상 저하

- 2003년에 미국경제의 1/8에 불과하던 중국경제가 2025년에는 1/3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.
- 2020년경에 **중국의 경제규모가 일본을 상회**할 전망

미국의 위상 유지

- 미국경제의 비중은 향후 소폭 하락하지만 2025년에도 여전히 세계 1위를 유지

인도, 러시아, 브라질의 위상 상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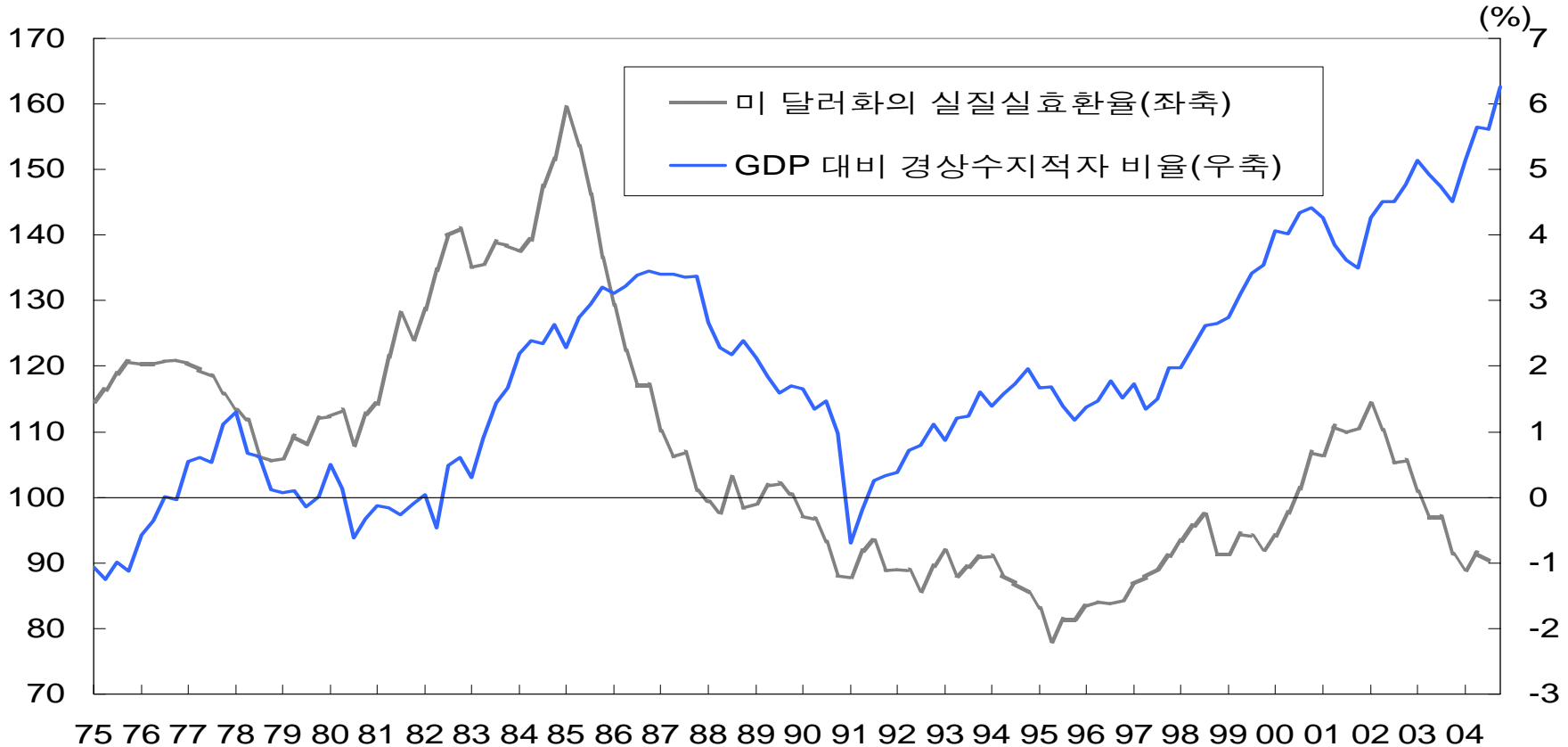
- 인도, 러시아, 브라질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3년의 4.1%에서 2025년에는 7.9%로 증가할 전망
- * **인도(3.1%)와 러시아(3.0%)의 경우, 2025년에는 우리경제(1.8%)를 상회하는 규모로 성장할 전망**



||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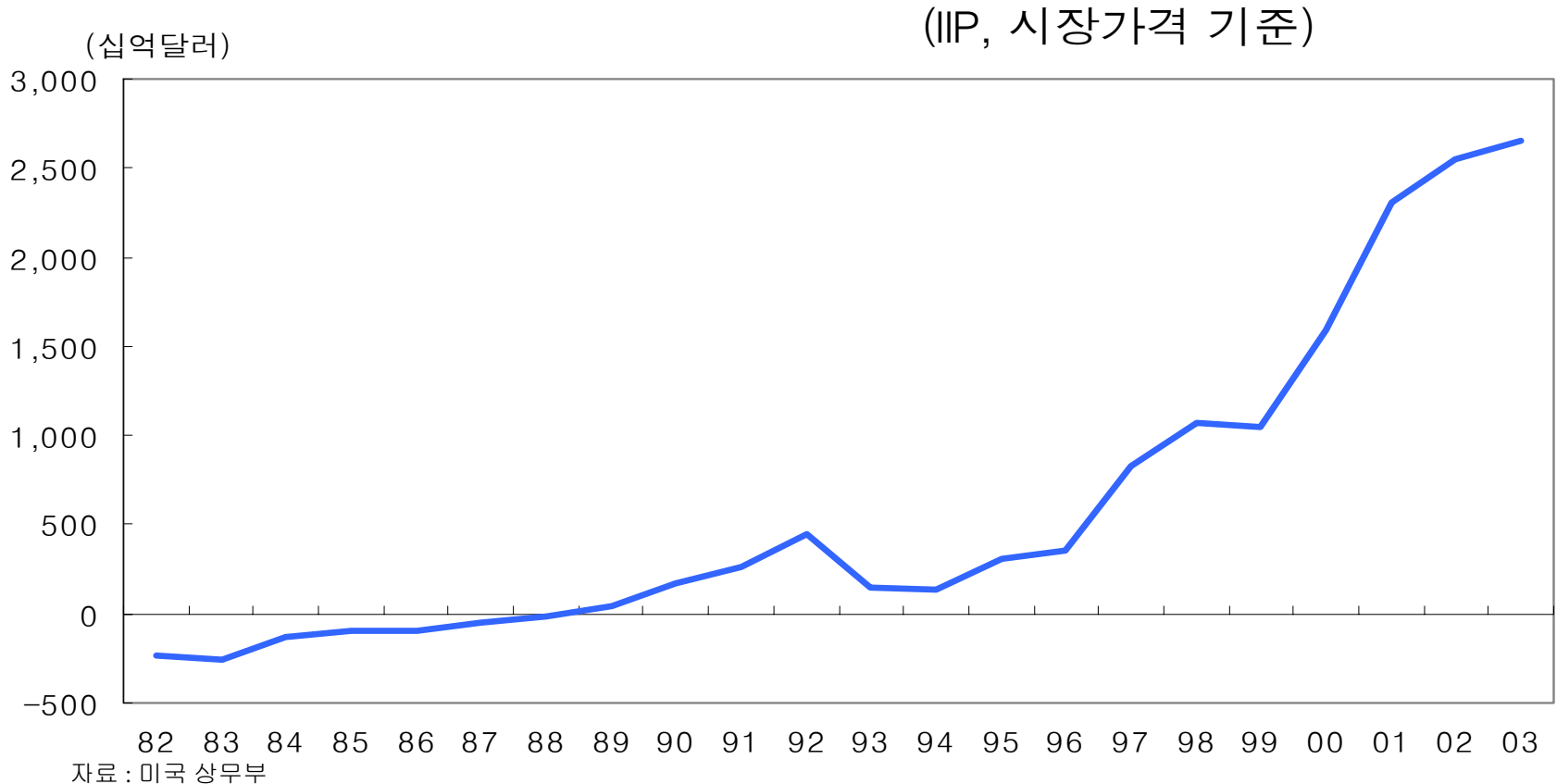
최근 2년 동안의 美 달러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오히려 확대되는 모습

- 2004년 경상수지 적자폭(4/4분기, GDP 대비 6.3%)은 플라자합의 당시의 수준(GDP의 3.5%)을 크게 상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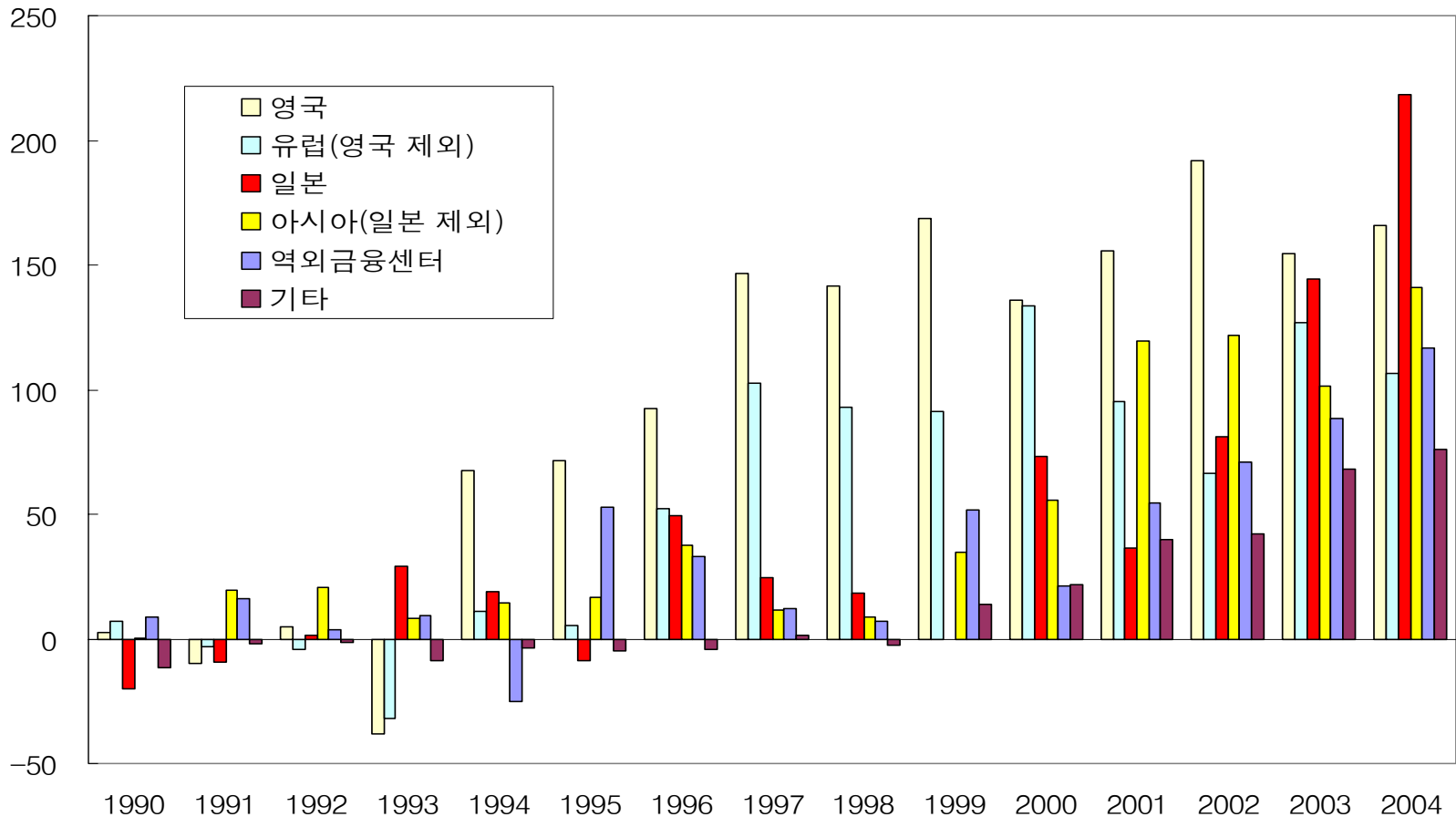
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자본유입이 확대되면서 미국의 대외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

- 순대외부채(IIP 기준, 직접투자 및 주식투자 등을 포함)는 90년대 중반 이후 급증하여 2003년에는 2.6조 달러를 기록



- 2000년 이후 미국의 대외부채 증가(자본수지 흑자)는 대부분 일본 등 아시아 국가로부터 유입된 자금으로 충당

(십억달러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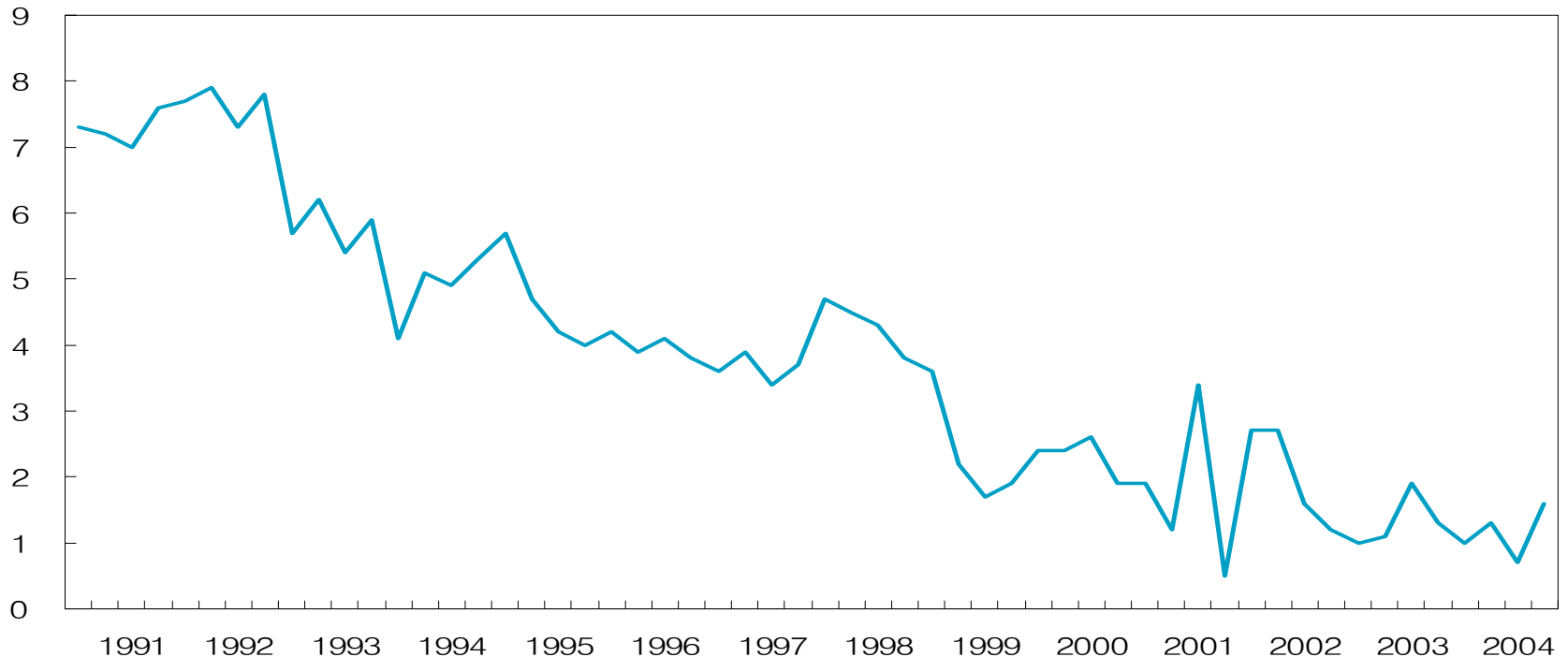
자료 : 미국 재무부

경상수지 적자 확대는 근본적으로 **소비 증가**에 따라 저축이 투자지출보다 낮아진 데 기인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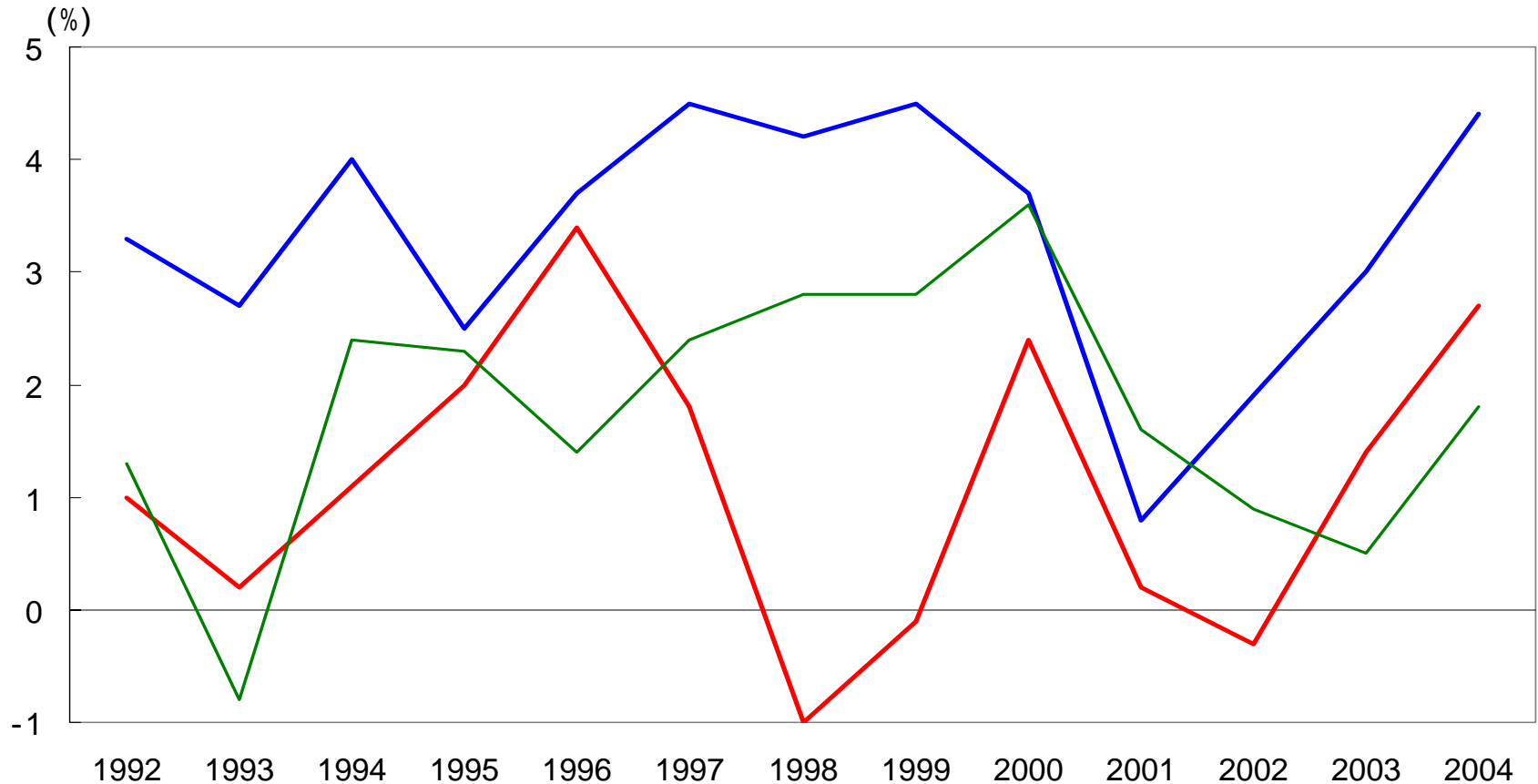
- 미국의 가계저축률이 1992년 이후 추세적으로 하락하면서, **해외상품에 대한 지출 증가**세가 확대

(%)

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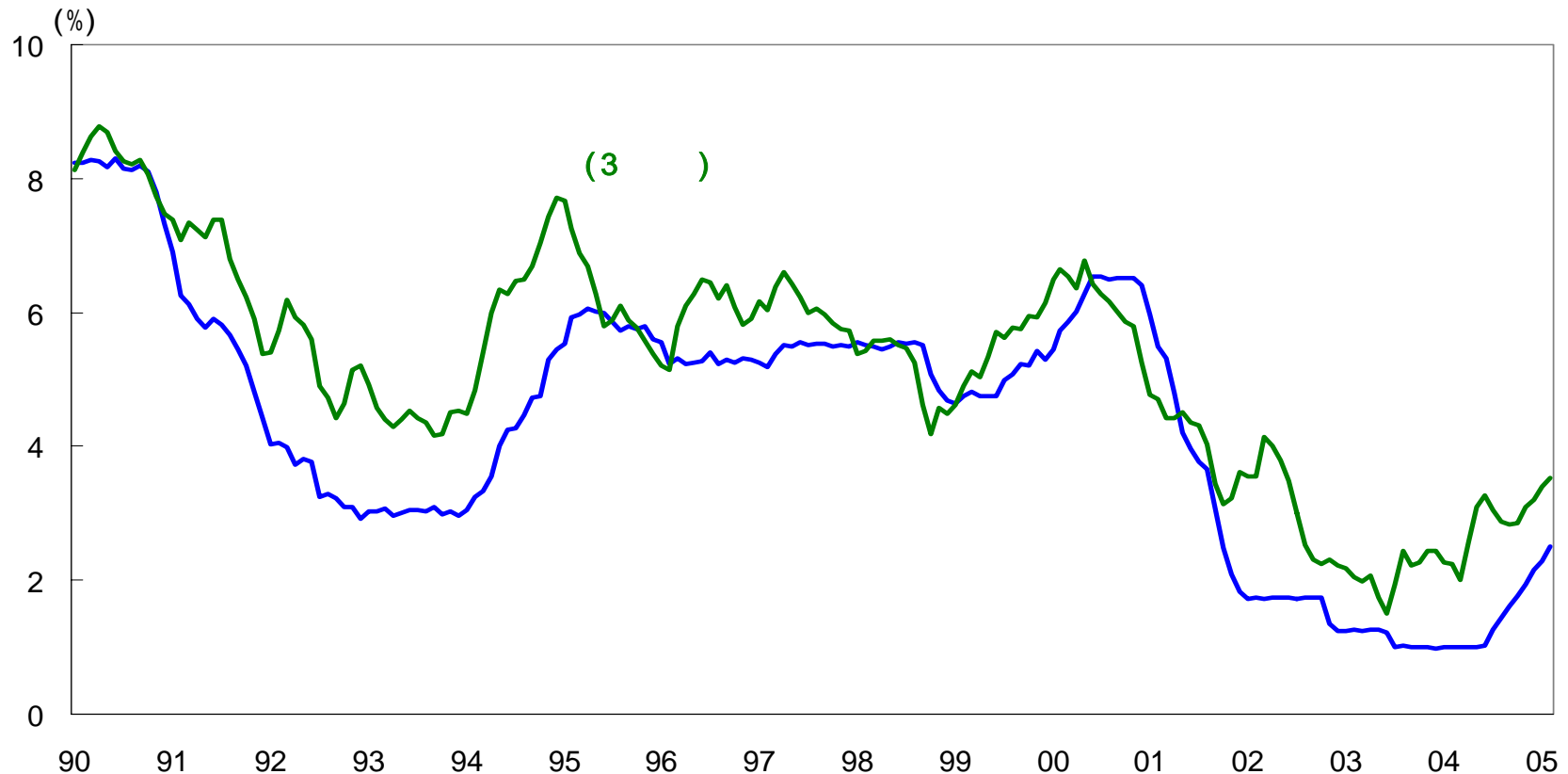


미국의 경제성장률이 주요 교역대상국에 비해 높게 유지되었던 것도 경상수지 적자 지속의 주요 요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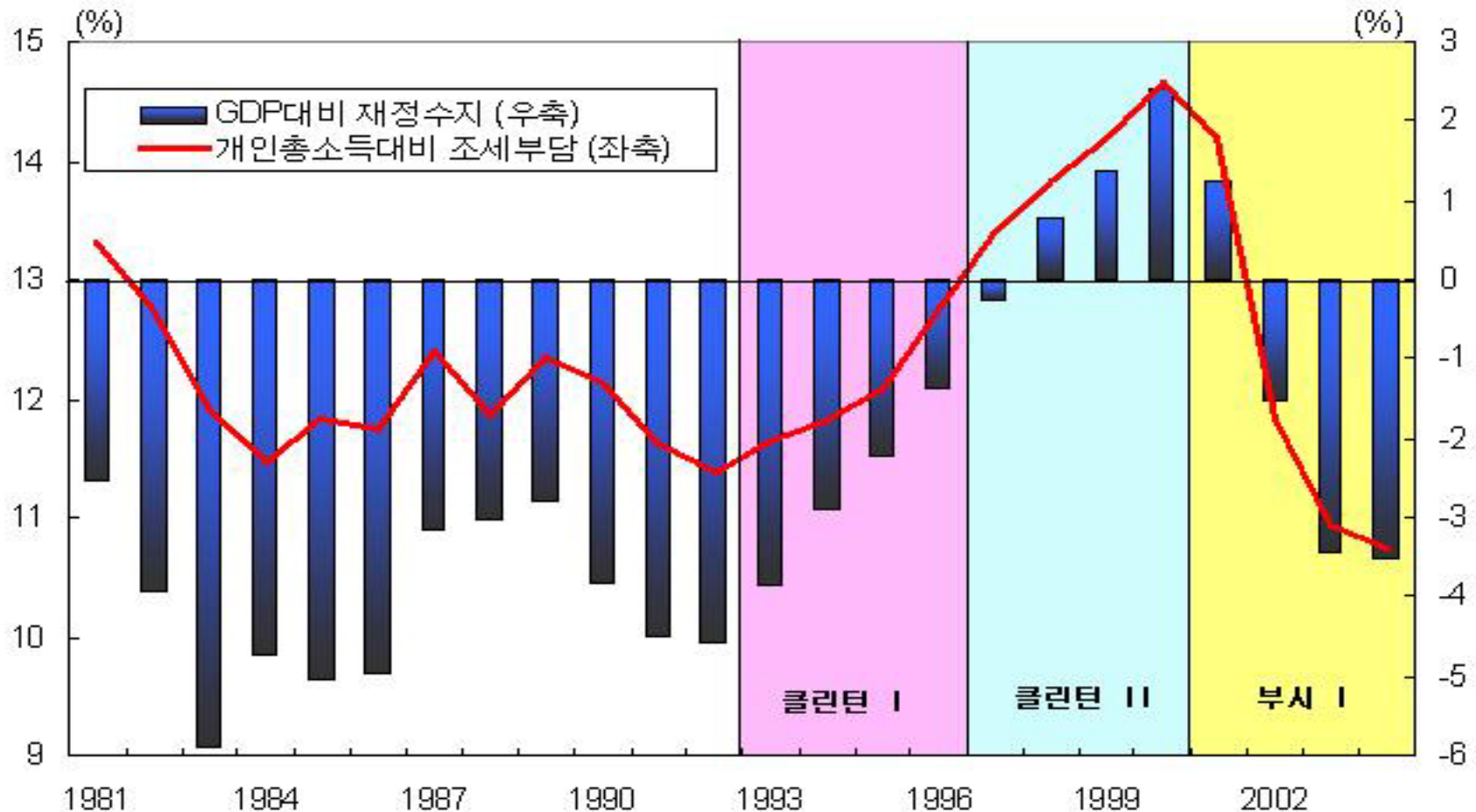


IT 호황 이후의 경기 침체에 대응한 **확장적 금융·재정 정책**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누적에 기여

- IT 버블붕괴 이후에 초래된 세계적 동시불황과 2001년 9.11 테러로 인한 투자심리 악화에 대응하여 미 연준은 **초저금리 정책**을 지속



- 또한 대규모 **조세감면**을 추진함에 따라 재정수지도 2000년 GDP 대비 2.2% 흑자에서 2004년 3.6% 적자로 반전
- * 조세감면 규모(계획)는 부시대통령 취임 이후 10년간 1.7조달러에 달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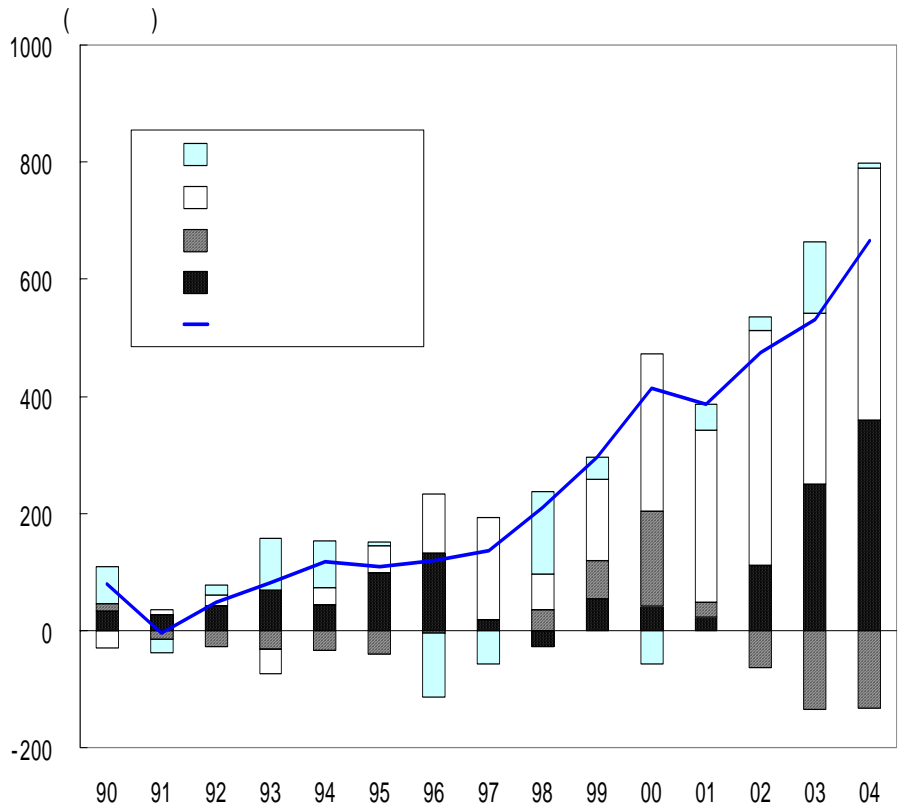


2.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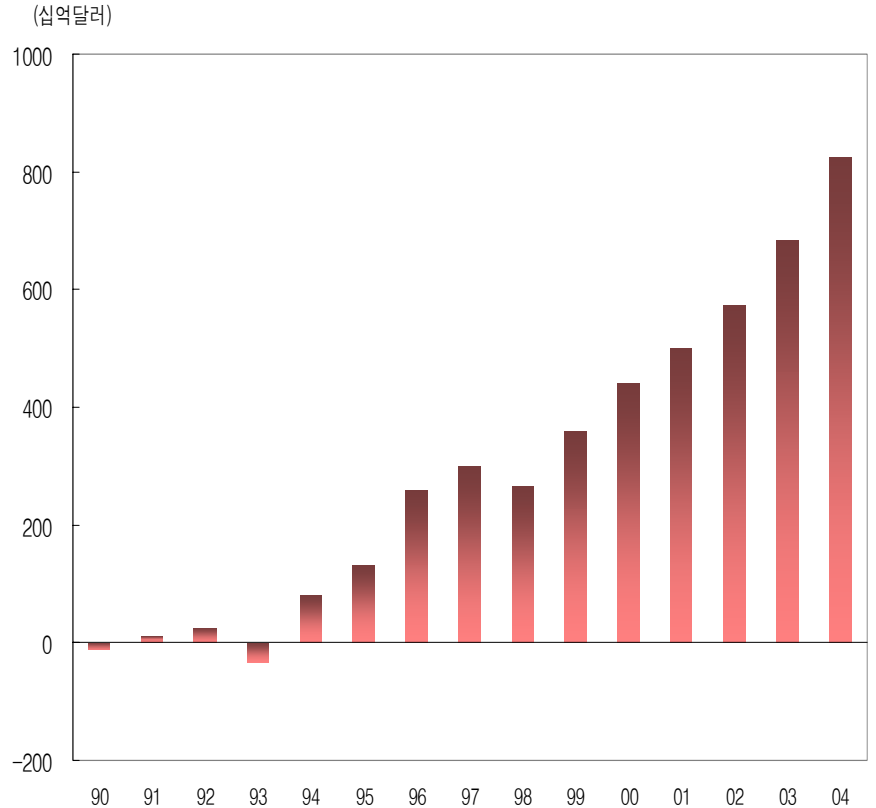
(1)

미국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될 경우, 국제금융시장 불안과 세계경제의 급격한 위축이 초래될 위험 증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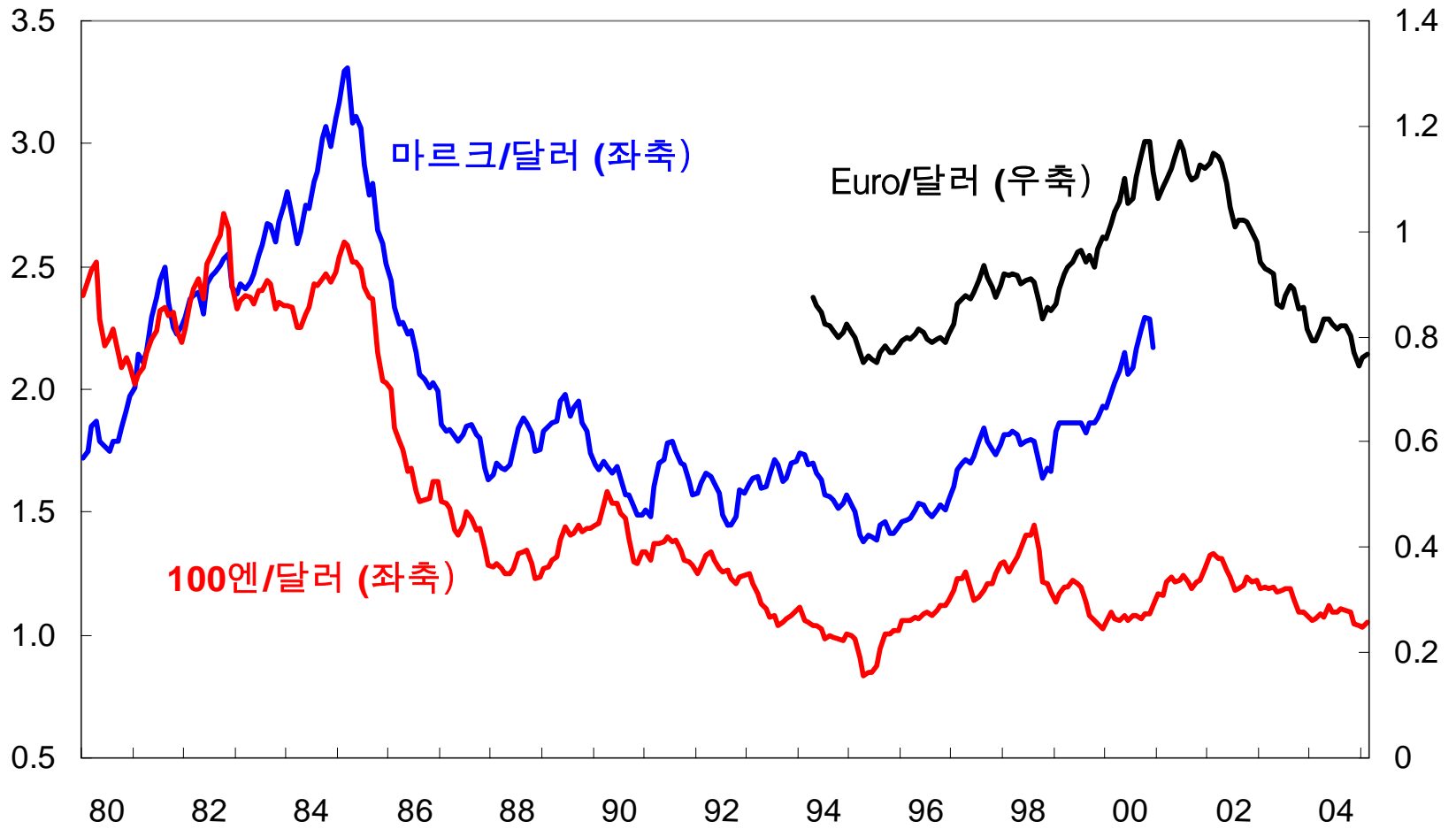
- 달러화 가치의 추가 하락으로 기축통화로서의 위상이 저하되고 외국인 투자자금이 급격하게 유출될 가능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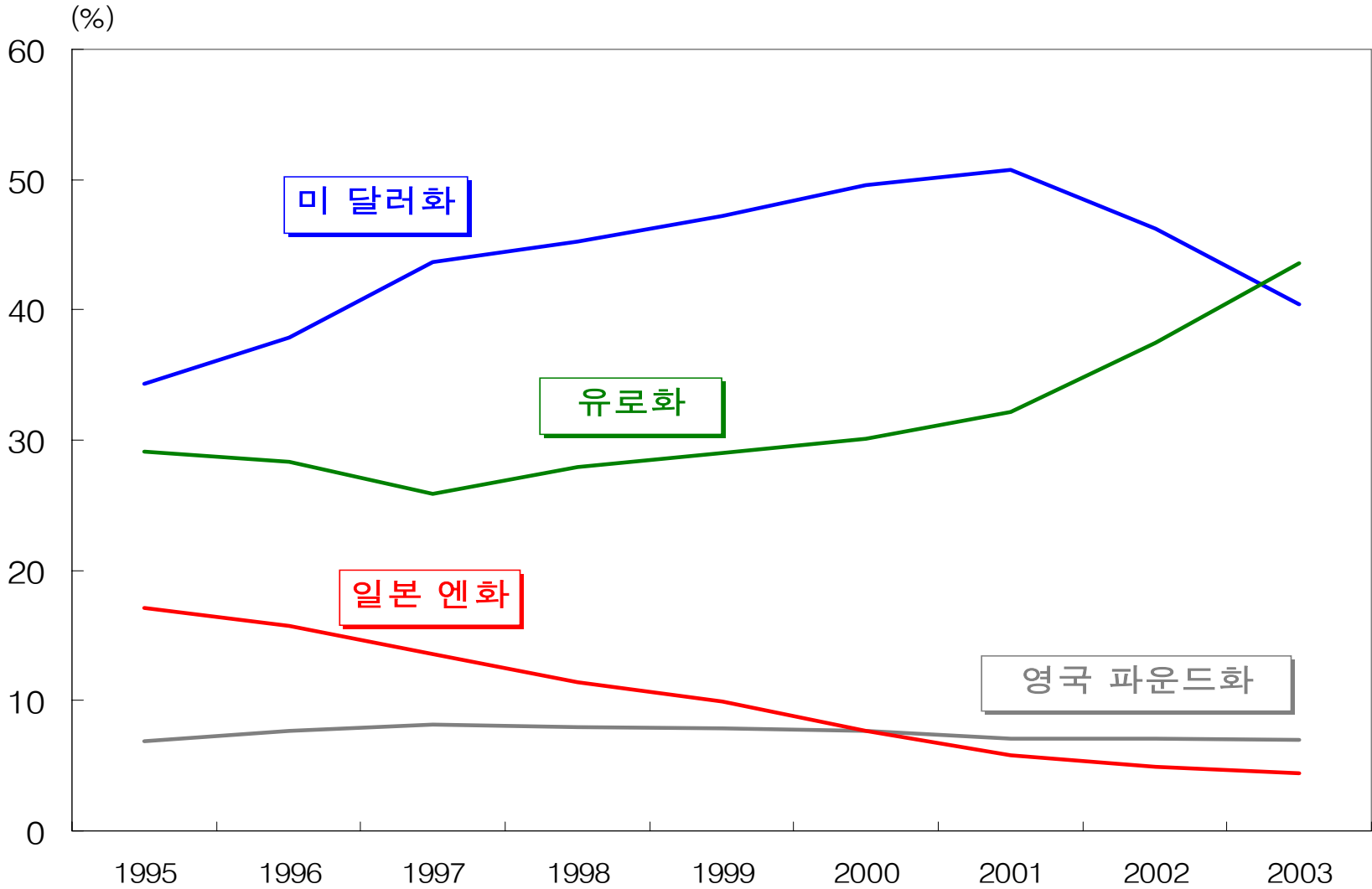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미국 상무부



자료 : 미국 재무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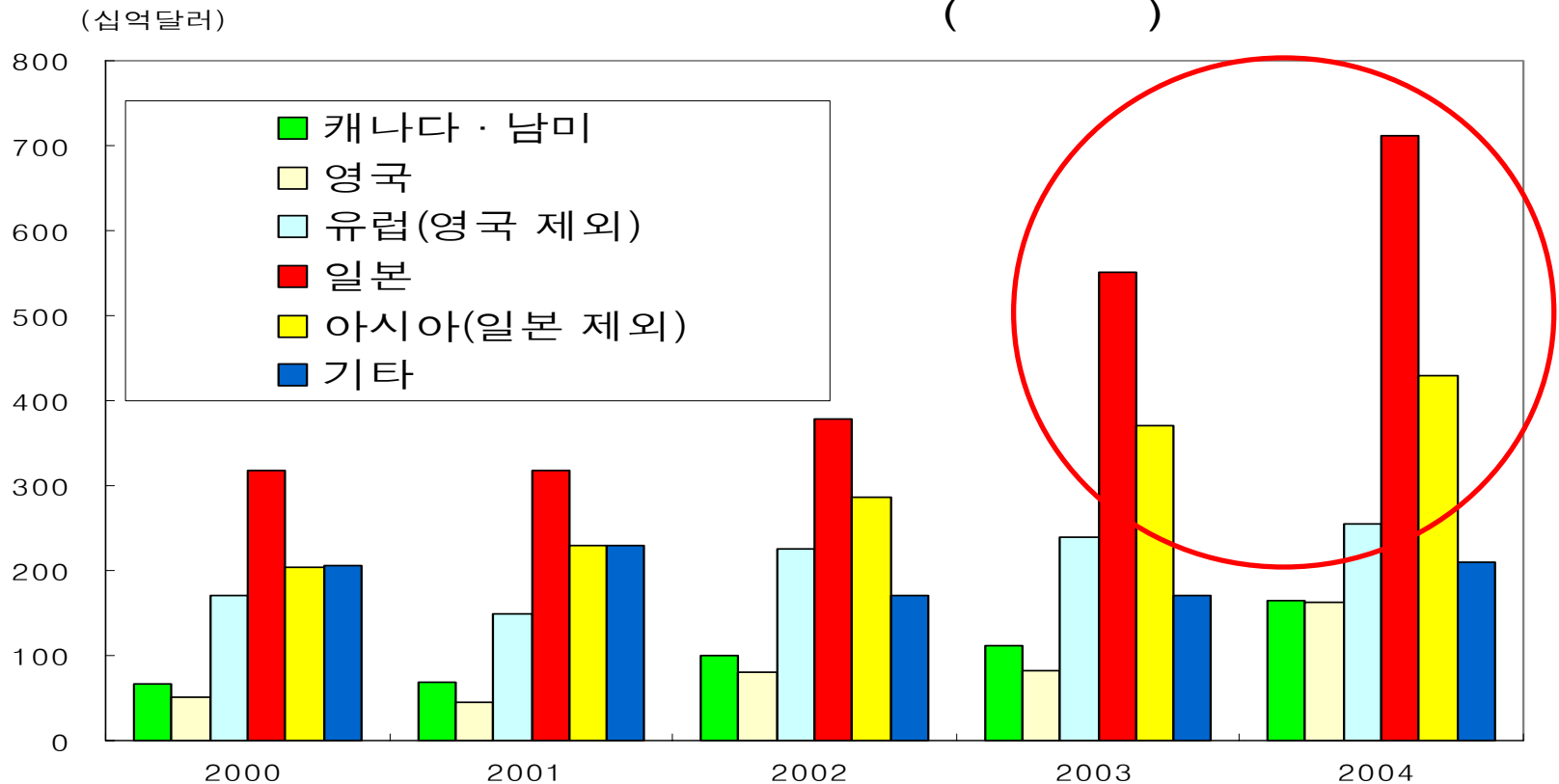


주 : 1995~1998년 '유로화'는 유로지역 통화표시 국제채 잔액의 합을 의미
자료 : IMF,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, 각호.

2.2

(2)

- 특히 美 국채 매입을 통한 자본유입이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에 집중되어 있어, 이들 국가의 외환보유액 운용 다변화 움직임이 가시화될 경우, 달러화 가치의 급락과 함께 자본이탈이 가속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.



최근 미국정부는 재정적자 급증에 대응하여 재정적자 감축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으나, **향후 5~10년간 재정수지 개선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평가됨.**

- 재정적자 감축 5개년 계획: 방위비 지출을 감축하지 않으면서 재량적 지출(방위비 및 국토안전비 등 제외)을 동결함으로써 전체 재정적자를 5년 이내에 2005년 회계연도 예상액(4,270억 달러)의 절반 이하로 축소
- 그러나 OECD자료에 의하면, 재량적 지출이 지난 20년간의 평균인 매년 2%의 실질 증가세를 지속할 경우, 2005~14년 동안의 재정수지 적자가 GDP의 1%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됨.
- 이에 더하여 2001년과 2003년의 감세조치에 포함되어 있던 일몰조항이 삭제되어 세금감면이 영구화(재선공약)될 경우, 같은 기간내에 **GDP의 4% 이내로 축소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됨.**

한편, 미국경제의 유연성, 국제적 정책공조 가능성 등은 미국의 대외불균형에 기인한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단기간에 현재화될 위험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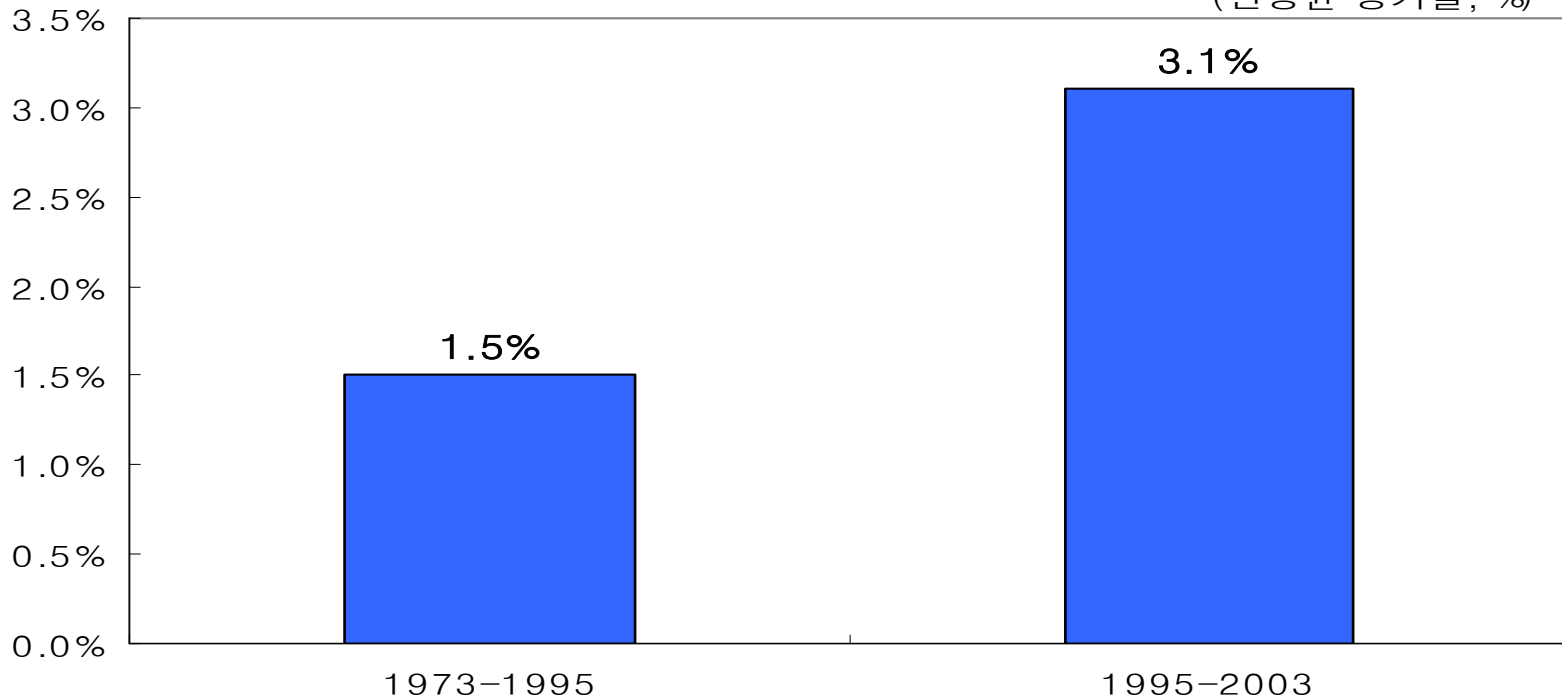
- 경제력의 중장기 결정요소인 생산성이 견실하며, 경제활력도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음. (<부록 1> 참조)
- 美 달러화 가치의 급락은 외환보유액의 상당 부분을 달러화 자산에 운용하고 있는 각국 중앙은행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. (<부록 2> 참조)
- 다음과 같은 특징들도 급격한 투자자금 유출에 의한 금융위기 위험을 축소하는 요인으로 작용
 - * 선진 금융시장 보유에 따른 낮은 투자위험
 - * 구조조정 시스템에 대한 신뢰 및 효과적이고 유연한 경제정책 등

쌍둥이 적자 등 대내외 불균형에도 불구하고
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인 생산성 증가가 고성장을 견인

- 1995~2003년 중 미국의 노동생산성은 연평균 3.1% 증가하여, 1973~1995년의 연평균 증가율(1.5%)의 2배 이상에 달하는 수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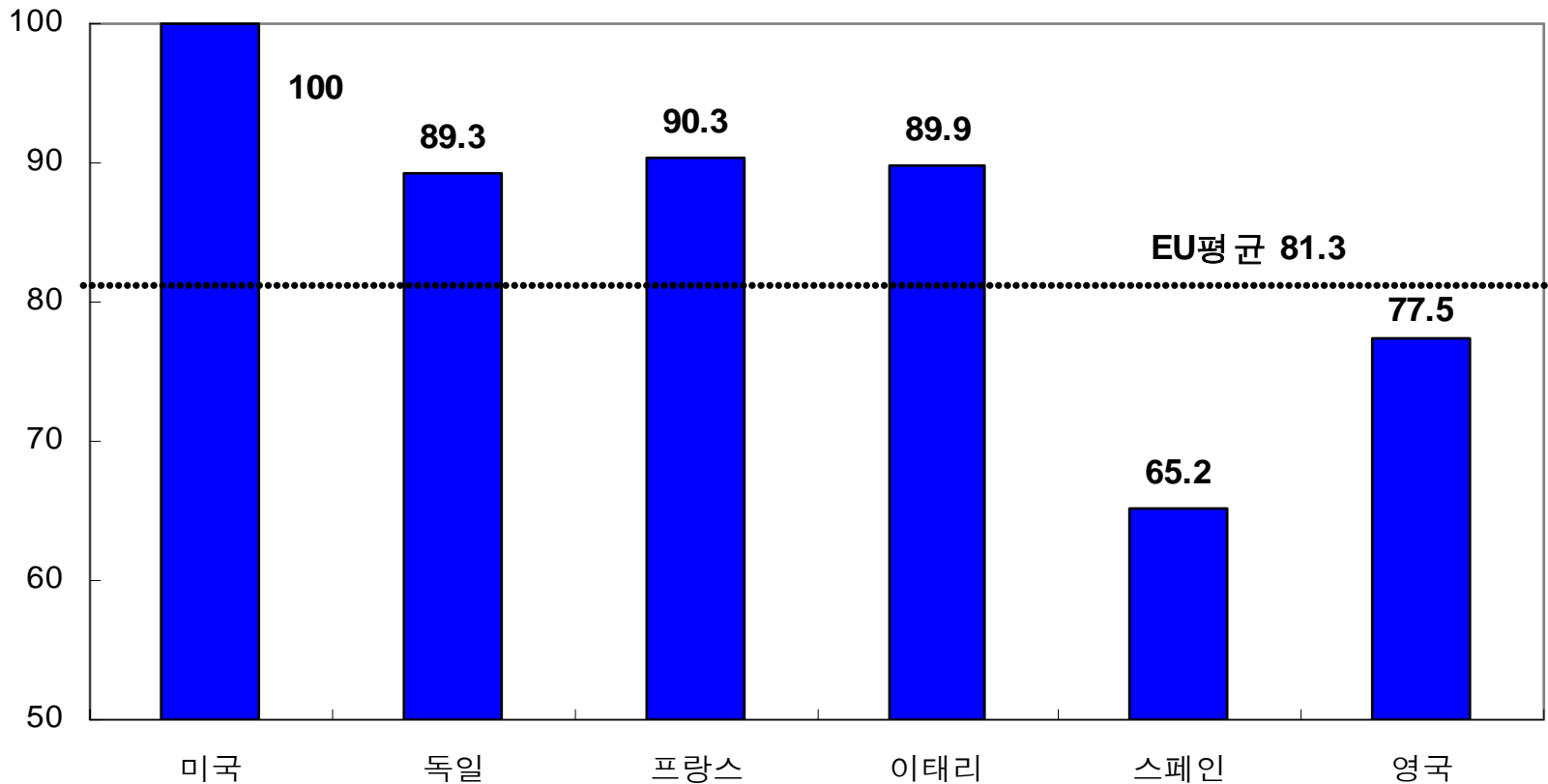
가

(연평균 증가율, %)



• 2002년말 현재 EU의 노동생산성 수준은 미국의 81% 수준에 불과

가



- 미국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제조업 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에서도 높은 생산성 증가율을 시현

-

	1986~1995		1996~2000	
	미국	유로지역	미국	유로지역
제조업	3.2	2.8	5.6	- 2.7
도소매판매	1.3	1.8	7.6	- 0.5
사업서비스	1.1	1.4	4.2	- 0.9
금융보험	1.2	1.6	6.5	3.7

교역상대국의 내수부양을 전제로 하는 ‘지출조정경로’를 통한 불균형 조정은 한계가 있으므로, 환율조정을 포함한 ‘가격조정경로’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임.

- 현재는 유럽 및 일본 등 주요국이 거시정책수단을 통한 경기진작의 여력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지출조정경로의 실효성이 크지 않음.
 - * 예컨대, 독일, 프랑스, 이태리 등 유로지역 국가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EU의 안정·성장 협약에서 정한 한도인 3%를 이미 초과하였으며, 일본의 경우에는 7%에 달한 상태
 - * 유럽중앙은행과 일본은행은 사상 최저의 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유동성 공급 증가에 따른 더 이상의 경기진작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.
- 중국정부는 현 시점에서의 평가절상 필요성에 동의하지 않고 있으나, WTO 가입시 제시한 ‘2006년 금융시장 개방’ 일정을 고려할 때, 향후 위안화 절상 및 환율제도 개편을 위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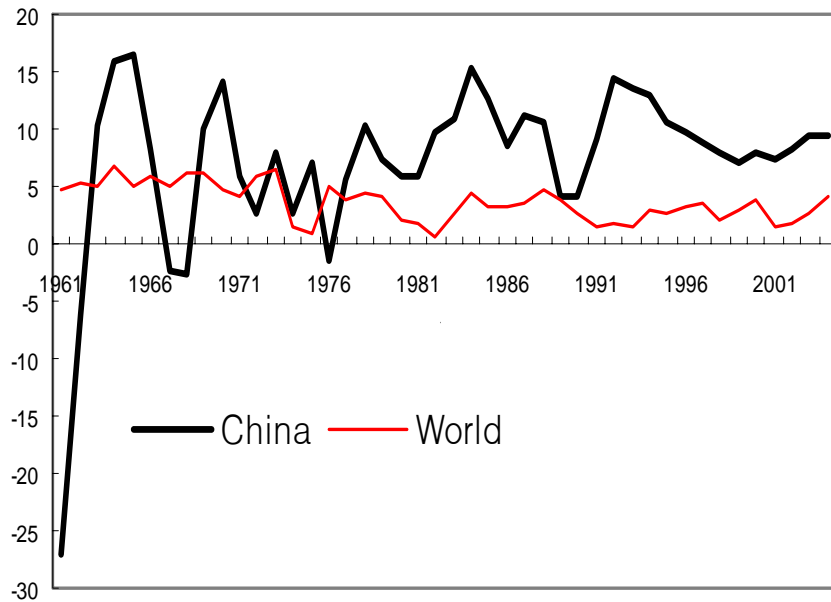


III. BRICs

중국경제는 1978년 개혁개방정책을 채택한 이후 급속한 성장세를 시현

(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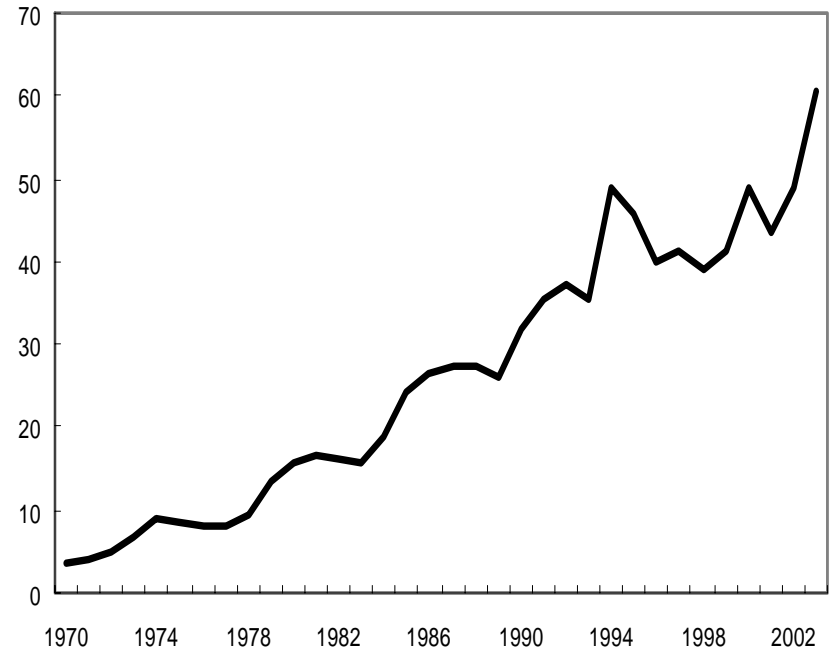
(단위:%)



자료: World Bank

GDP

(단위:%)



자료: World Bank, 중국통계연감, Global Insight

경제체제 개혁: 시장경제원리 도입

- 전산업에 걸쳐 가격 및 소유제도의 개혁을 추진
- 노동시장의 형성

경제개방: 교역 확대 및 외자 유치

- 대외무역 중시정책
- 법 제도의 정비 등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외자유치 확대
- WTO 가입 등 글로벌 스탠다드 적응 노력

경제 하부구조 확충 및 인적자원 육성

-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SOC 투자 확대
- 교육투자 확대 및 해외유학인력 국내 유치

금융권의 부실채권

- 국민경제에서 비중이 큰 국유기업의 비효율적 경영으로 인해 **금융기관에 부실채권 누적**
 - * 중국정부는 총 대출의 13% 내외, IB들은 25~45%로 추정
- 과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부동산가격이 급락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추가적으로 훼손될 가능성

정부재정의 취약성

- 최근 중국의 GDP대비 재정적자는 3% 내외를 기록
- 공식적인 정부채무는 GDP대비 30%를 하회하고 있으나, **우발채무를 포함하는 경우 GDP대비 60%에 근접**할 것으로 추정

중국 위안화의 절상

- 위안화 절상은 단기적으로 중국의 성장세를 다소 둔화시키는 효과

에너지 등 자원부족

- 중국, 인도 등의 원자재 수요급증, 중동정세 불안 등으로 석유 등 원자재 확보를 위한 경쟁이 격화될 가능성
 - * 특히 중국의 경우, 제조업 중심의 고성장, 소득증가에 따른 소비확대에 기인하여 원유·석탄·금속·곡물 등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.
 - * 그 결과 중국의 에너지 대외의존도가 크게 상승
- 원유 및 광물자원 등 대부분 원자재의 생산지역이 편중되어 있어 보다 적극적인 국가간 협력이 부재할 경우 신규자원 개발 등 안정적 자원공급원 확보 경쟁은 급격히 심화될 가능성이 높음.

정치체제와 경제체제간의 부조화

- 경제개혁은 급속히 진행된 데 비해 정치체제의 변화는 느리게 진행
- 경제성장에 따른 의식변화, 이해관계의 다원화, 빈부격차의 확대 등으로 인해 정치체제의 안정성 약화 가능성

지역 격차의 확대 및 실업 문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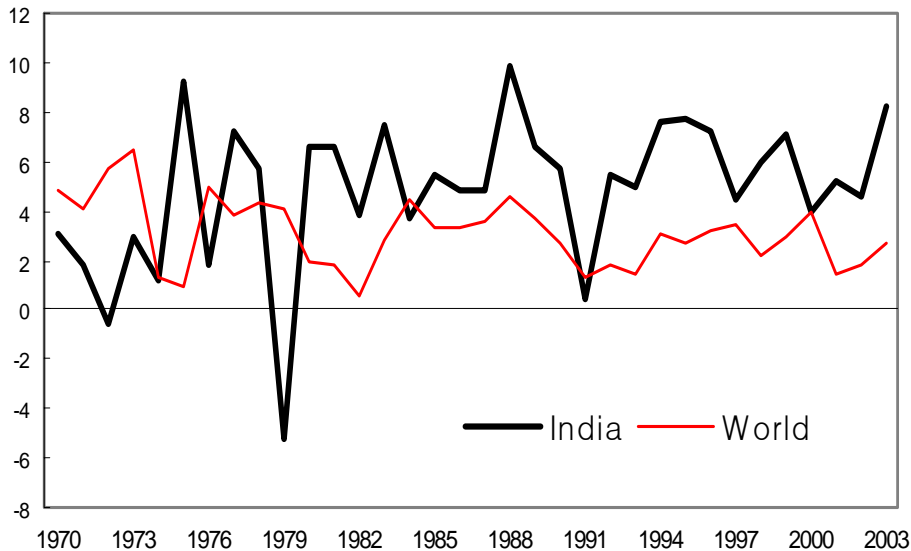
- 도시와 농촌 지역간의 소득 불균형 확대(2002년 현재 도시지역 1인당 소득이 농촌지역의 3.7배)
- 농촌지역의 유희노동력은 1억5천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, 도시지역으로의 인구유입에 따라 도시지역 실업률이 현재 4% (국유기업 잠재실업자 포함시 7%)에 이르는 등 고용상황의 개선이 어려울 전망

인도경제는 1991년 외환위기 이후 경제개혁·개방을 가속화하는 개발전략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

- 1980년대 부분적인 경제자유화 및 정책 지원 강화
- 1991년 외환위기는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와 구조적 무역수지 적자가 주 원인이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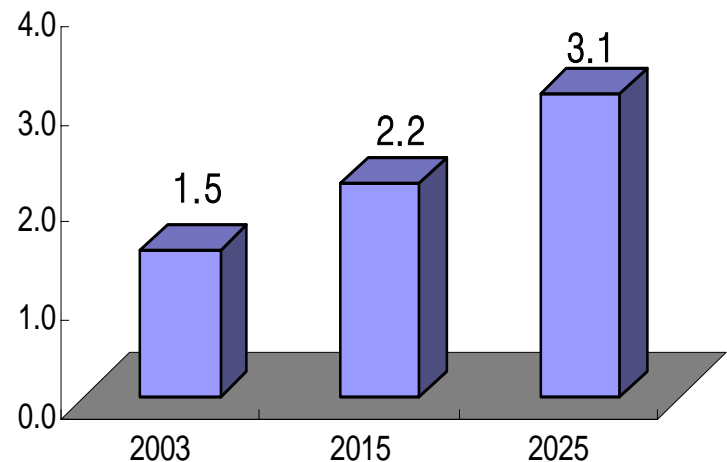
()

(단위:%)



자료: World Bank, IFS, Global Insight

(비중, %)



자료: Global Insight, 『World Economic Outlook』, 2005.1

시장 · 개방경제체제로의 전환

- 정부의 수급통제 포기 및 민간부문의 국영산업부문 진입 허용
- 금융개혁 (금융기관 건전성 감독 강화 및 금융산업 개방 확대)
- 수입물량규제 축소 및 관세 인하, 외국인 투자 유치 노력

우수한 과학기술인력

- IMD는 인도 교육기관에서의 과학교육 실시는 세계 3위,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은 세계 2위 수준으로 평가
- 과학 및 IT부문에서 경쟁력 보유

영어의 상용화와 낮은 인건비

- 제조업 노동자 임금이 시간당 0.3 달러 수준

낙후된 경제구조

- 1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 상태
 - * 2003년 농업부문은 GDP의 22.4%, 고용의 60%를 차지
- 인프라 부족과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은 제조업 성장의 제약요인

재정의 취약성

- 조세행정의 미비로 세수기반 취약
- 이자지급 부담, 구조조정 비용 등으로 적자 축소 어려움
 - * 2004~05년 정부 총지출중 이자지급액이 29.2%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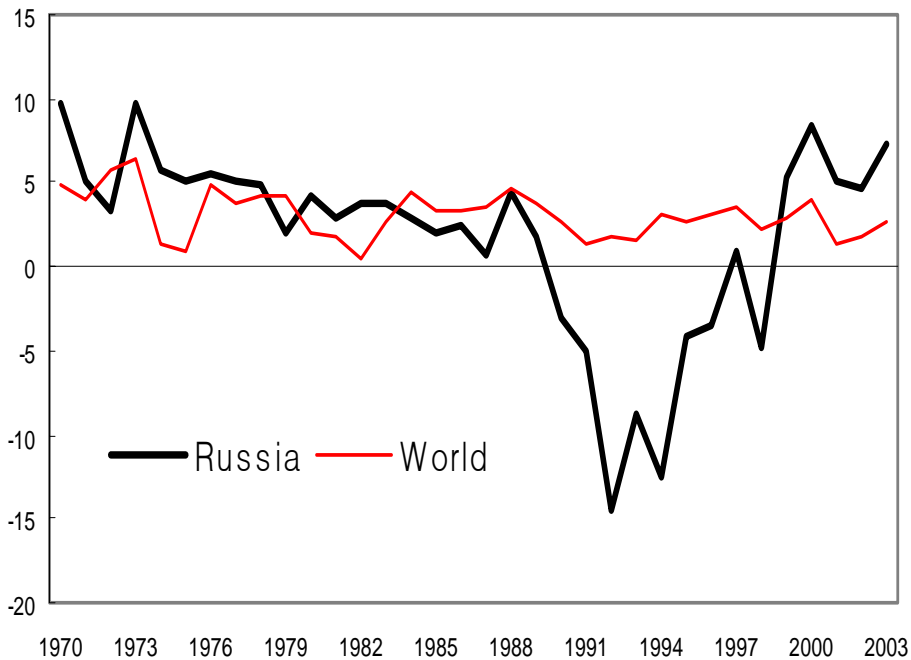
정치 · 사회적 불안정

- 지역 정당의 난립과 부정부패 등으로 일관된 정책 추진이 어려움
- 심각한 빈부격차와 계급 · 종교 · 민족간 대립
 - * 카스트 제도로 인한 사회통합의 어려움

러시아경제는 1999년 푸틴 집권 이후 정치안정과
고유가에 힘입어 높은 성장세를 시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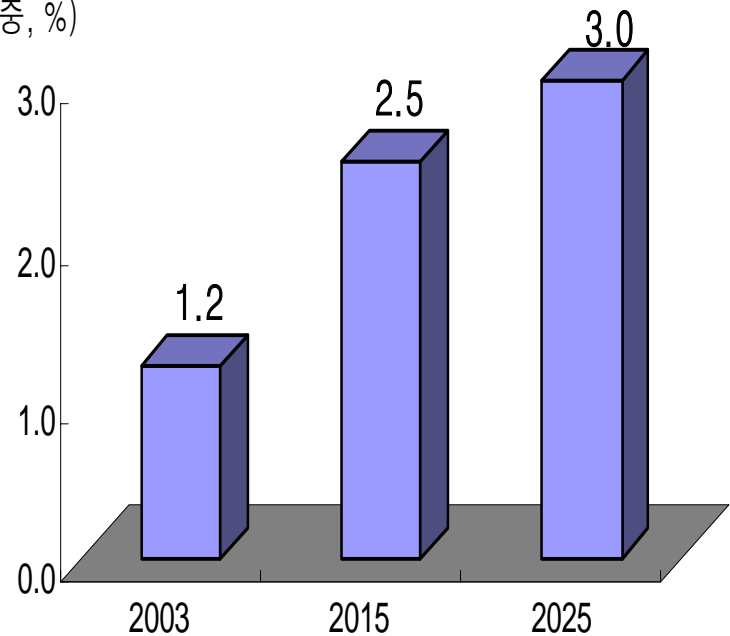
()

(단위:%)



자료: World Bank, IFS, Global Insight

(비중, %)



자료: Global Insight, 『World Economic Outlook』, 2005.1

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한 경제개혁 추진

- '강한 국가 재건'이라는 슬로건 하에 정치지도력 발휘
- 정치·사회 제도의 개혁 및 경제구조 조정 본격화

대외개방 확대

- 중장기적으로 대외개방을 통해 러시아경제 체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WTO 가입 추진

풍부한 인적자원 및 천연자원

- 풍부한 고학력 인력과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수준 보유
- 세계 1~2위의 천연가스 및 원유 생산량

에너지 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

- 에너지 산업은 연방예산 수입의 40%, 전체 수출액의 58%를 차지

금융부문의 낙후

- 은행의 80%가 국가의 통제를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.
- 주로 공공부문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을 담당
- * 2003년 은행의 기업부문 여신은 GDP대비 18% 수준

관료주의, 부정부패, 지하경제 등

- 지하경제는 GDP의 30~40%로 추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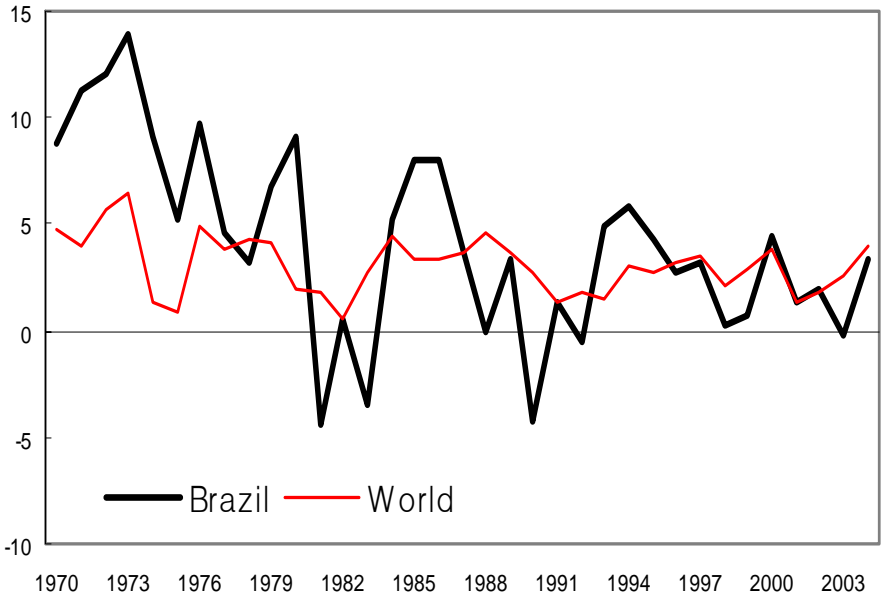
3.4

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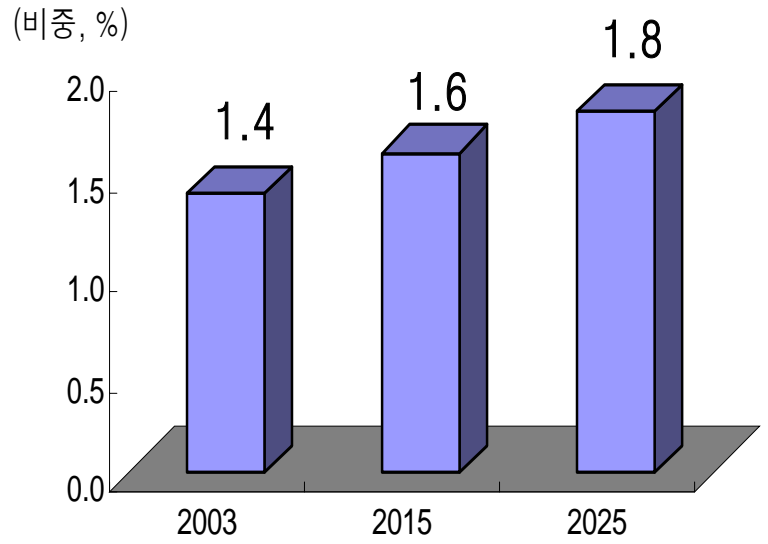
● 브라질경제는 반복되는 외채 · 외환위기로 인해 등락을 거듭하였으나, 2003년 이후 안정되는 추세

- 1980년대 초 외채위기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경기침체를 경험
- 2003년 룰라 정부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면서 금융시장 안정

() (단위:%)



자료: World Bank, IFS, Global Insight



자료: Global Insight, 『World Economic Outlook』, 2005.1

풍부한 천연자원

- 농업·임업·수산 자원, 광물 및 원유 자원 풍부

경제체제 개혁

- 1995년 까르도주 정부 이후 기간산업의 민영화, 무역자유화, 조세개혁, 사회보장 및 노동개혁 추진, 변동환율제 도입
- 룰라 정부도 IMF와의 합의하에 지속적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물가안정, 공공부채 축소 등을 추진

지역경제 통합 가속화

- 남미자유무역지대 및 미주FTA에 적극적으로 참여
- 중국, 인도와의 FTA 체결 추진

● 대규모 외채 부담

- 2002년말 현재 외채규모가 2,271억 달러(GDP의 49.3%)로 세계 최대 외채국

● 심각한 빈부격차

- 소득 상위 10%가 국부의 절반 이상 보유, 상위 3%가 농경지의 60% 이상 보유

● 복잡한 법체계, 고율의 세금, 관료주의, 부정부패, 인프라 부족 등



IV.

4.1

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경제권의 부상

- 중국뿐 아니라 인도 및 러시아도 부상함에 따라 향후 수십년간 **광의의 아시아가 가장 역동적인 경제권**으로 자리 잡을 전망
- 한편 20~30년 뒤에는 **중국이 세계 제 2의 경제대국으로 부상**하면서 일본을 추월하여 아시아의 경제적 · 정치적 리더로 자리 잡을 가능성

미국의 지속 성장

- **미국**은 신축적이고 효율적인 경제시스템을 확보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**선진국들 중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**를 지속할 전망
 - * 아시아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미국보다는 일본 및 유럽의 상대적 위상이 하락할 것임을 함축
- 중단기적으로는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적자라는 거시경제 불균형이 미국경제의 활력 및 달러화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 상존

4.2

다극화하는 세계경제체제 하에서 **BRICs 등 역동적으로 성장할 국가와의 연계를 강화**하여 시장을 적극 개척할 필요

- 세계경제권의 한 축으로 부상하는 아시아 역내국가들과의 경제통상협력 강화를 위한 민관협조체제를 구축
- 민간기업이 수출확대, 해외직접투자의 차원을 넘어 현지기업과 결합된 다국적기업의 형태로서 세계를 대상으로 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

대외개방 확대 및 유연한 시장경제 시스템의 확산

- 경제개방 및 시장경제 시스템을 통해 우리 스스로의 경쟁력을 확보
 - * 미국이 선진국 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, 중국이 80년대 이후의 고도 성장세를 상당 기간 지속하고, 인도 및 러시아가 역동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은 모두 해당 국가들의 경제개방과 시장경제 시스템의 확산에 근거

한편 세계경제 불균형 조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달러화 및 위안화 가치 급변동과 국제자본 이동을 예의 주시할 필요